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어디까지 왔나 (上)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화는 바로 돈이다. 문화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 산업 판도를 재편하는 '폭풍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엔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세계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아이টে으로 빠른 시간내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문화콘텐츠다. 특히 우리전통문화의 흐름과 함께 해온 불교문화콘텐츠는 엄청난 문화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불교문화 콘텐츠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프로젝트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불교문화콘텐츠의 캐릭터 시장 기상지도는 '맑음'인데 비해 그 나머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모바일 등은 '흐림'이다. 캐릭터 개발은 미약하나마 96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산하 기획단체들과 불교 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에 의해 꾸준히 개발돼 왔다. 연꽃, 만(만)자, 사천왕, 동자승, 아귀코끼리, 아귀부처님 등이 열쇠고리, 티셔츠, 복주머니, 신용카드, 현수막 등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 캐릭터는 아직도 대중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나 어림잡아 150여개개 념을 정도로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제작 문화원형디

지탈콘텐츠 공모에서 정명희 엔알케이의 '만복스님 단청문양의 산업적 활용방안' 과 정석규 호남대 인터넷미디어대학 교수의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로 재창조' 프로젝트와 무안엔디의 '고려팔관회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현재 이 작품들은 6월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해 마지막 마무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의 대부분이 모두 캐릭터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일반시장들은 빠른 시간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불교문화콘텐츠는 수요창출이 적은 캐릭터 쪽

캐릭터 시장 기상도 '맑음' 게임·만화·모바일은 '흐림'

상업성·대중성 벽에 막혀 고전

인력난·자금 중단차원 지원 필요

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자본을 꼽는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 큰 자본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 보면 오락이나 대중성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과거 서유기를 응용한 '니르바나' 게임이 등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또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인 '불교사랑'이 '공작왕', '퇴마록', '탄트라' 등의 불교소재를 개발했지만 게임메니아들의 시선을

끌지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은 올해 개봉되는 '오세암'이, 모바일 분야에서는 스타팅이 제공하는 '반야심경', '정울스님의 노래하는 기도' 등 간단한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고작이다. 1백개가 넘는 찬송가가 서비스 되는 다른 종교 콘텐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불교문화콘텐츠 사업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아직은 '상업성'과 '대중성'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부족한 인력난 해소와 투자개발비

확보다. 불교계에서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학교내의 콘텐츠학과 개설 추진과 정부 산하 단체의 아카데미 교육 등에 우수 인재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05년까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4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 중단차원에서라도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별 예산이라도 마련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호남대 인터넷미디어학부 정석규 교수는 "관심은 많은데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우리문화원형 콘텐츠디지털화 공모나 대한민국콘텐츠 수출대상, 콘텐츠 투자유치 박람회 등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한국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응용한 캐릭터를 개발중인 정석규(사진) 호남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에서 한여름에 동자승과 노승이 나룻배에서 대화하고 있다. 뒤에 암자 세트가 보인다.

영화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독일과 공동제작·배급

6월 개봉예정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독일의 판도라 필름과 투자를, 바버리아 필름 인터내셔널과 배급을 공동으로 맡는다고 17일 밝혔다.

'봄 여름 가을...'은 아름다운 연못 위의 암자에서 벌어지는 인생 이야기를 4계절에 비유해 그려낸 영화로 김

종호, 서재경, 김영민 등 신인배우가 성장해 가는 스님의 모습을 차려보 보여주며, 연극인 오영수가 노승으로 출연한다.

지난해 5월 경북 청송의 주산지에 암자 세트를 지어 첫 촬영을 시작한 '봄, 여름...'은 3월말까지 봄 분량 촬영을 마친 후 6월쯤 국내 개봉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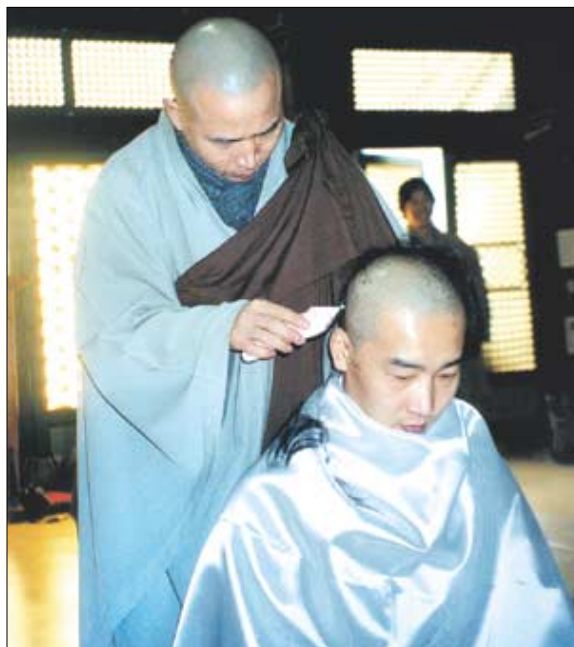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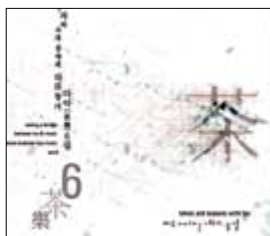
茶樂음반 제6집 출시

설날등 명절정취 주제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다악(茶樂) 음반 제 6집 '차로 이어지는 겨레, 숨결'을 출시했다.

이번 제 6집에는 설날, 삼짱날, 단오, 칠석, 동지 등 우리 민족의 명절에 느끼는 차의 정취를 주제로 삼아 표현했다.

첫 곡 '미풍에 실려온 미향(美香)의 미소'에서는 설날에 맞는 차의 향과 그 정취를 노래했으며, '삼짱날 삼화령'은 봄기운이 태동하는 계절에 마시는 즐거움을 서정적인 느낌으로 연주했다. '단오'에서는 25현 가야금 독주로 옮겨온 단오날의 모습을 선율로 옮겼다. 이외에도 '칠석' '동지'의 정취를 표현한 곡도 수록돼 있다.



연극 '붓대를 훑친 도둑' 배우 수계·삭발

연극 극단 '예살'은 불교연극 '붓대를 훑친 도둑' 개막공연을 앞둔 지난 21일 조계사 덕왕전에서 중하 스님(서울 관음사 주지)을 계사로 김중구(임승역), 이상직(원각 스님역), 최병규(시차 스님역), 전형재(말구역) 등 4명 배우들의 수계 및 삭발식을 가졌다. 김중구씨는 "스님을 모시고 수계식과 삭발식을 거행하니 진짜 출가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

설날 특집 하이라이트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5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충주 FM 96.7 MHz 호남 FM 100.1 MHz
-----------------	-----------------------------------	----------------------------------	-----------------------------------

△무명을 밝히고(29일, 오후 5시10분-오후 6시)-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불교계 양자를 소개한다. △즐거운 설날 고향 가는길(30일, 낮 12시20분-밤 9시)-귀향길 전국의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청취자들의 고향 소식을 전해준다. △가특한 만남(31일, 오전 9시5분-오전 10시)-강연인 복지시설 '원주 소책자 마을'을 찾아가 설날 풍경을 전해준다. △설날특집 대담 '계미년, 새해가 밝았네'(2월 1일, 오전 6시30분-오전 8시)-심우성 공주민속박물관장과의 대담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설날특집 9시간 생방송 '고향의 정, 거룩하'(2월 2일, 낮 12시10분-밤 9시)-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오락이 함께하는 귀성길 종합기타드 라디오 열린 마당 '휴먼닥터'(2월 3일, 오전 8시30분-오전 9시)-신호원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건강정보를 알려준다.

htn 불교텔레비전 <ch 32>

△도을 김용욱 특강(31일 오전 8시 10분-오전 8시 50분)-지난해 10월 삼각산 도선사에서 열린 도을 김용욱 씨의 '21세기와 한국불교' 강의. △장미화 콘서트(31일 오전 8시 50분-오전 10시 30분)-불자 가수 장미화 씨의 가수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청화스님 특별법담(31일 오후 1시 30분-오후 2시 30분)-'금강식론'에 대한 청화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특집다큐 '선광사'(31일 오후 3시-오후 5시)-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불교의 모습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를 추적한다. △특집 다큐 '목조각장'(2월 1일 오후 8시 10분-오후 9시 40분)-불교 목조각가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씨의 작품과 그의 예술관을 만나보는 시간.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2월 1일, 오후 11시 20분-오후 11시 50분)-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신년특집 대담으로, 공소사 주지 청야 스님과 이창영 주교회의 사무차장 신부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성창순의 판소리과 민요-국내 최고의 명창 성창순(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씨가 판소리와 민요를 들려준다.

희담석

"보살님, 처사님 생명의 돌, 희담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 연노랑, 갈, 남주

《희담석 물주머니》
● 권장소비자가격 : 38,000원

《희담석 다기세트》
● 권장소비자가격 : 80,000원

《희담석 보토》
● 고급형 보토 : 4,000,000원
● 1인용 보급형 보토 :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보토 : A형 13,000,000원 B형 15,000,000원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용남이와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여, 병을치는 원천의석의 집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나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천의석 폐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여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일거위 했으며 그나마 즐기 일수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알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 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 반 32등 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성적이 전제적으로 싹둑 높아졌다. 나의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원 중등)

좌선을 하거나 혹은 강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있더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경안 스님(선남, 덕후사)

마하물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